

미국은 지금

AI 섹터별 실적 및 밸류에이션 비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퀀트/자산배분 최재원 cjh5056@kiwoom.com

RA 이현수 hslee@kiwoom.com



Issue Brief

AI 주가 격차 심화 속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 실적과 밸류는 여전히 매력적

엔비디아가 최근 기업 역사상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 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처럼 AI 산업의 핵심 기업이 주가를 이끄는 배경에는 생성형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내 모든 섹터의 성장률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2024년 1월 대비 어플리케이션 가속기 섹터는 +96%의 증가율로 가장 두드러졌고, 인프라 소프트웨어(+92%), 하이퍼스케일러(+73%), 반도체(+56%), 역시 증가세가 강했다.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38%)와 하드웨어(+21%)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과를 기록했다. 이처럼 AI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섹터별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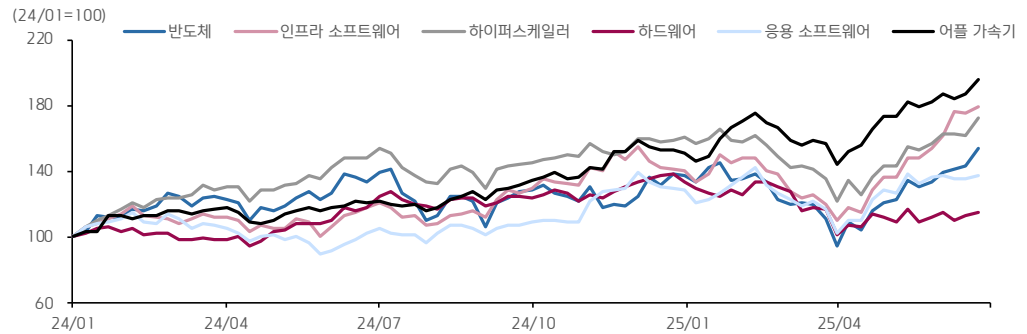
하이퍼스케일러와 어플리케이션 가속기 모두 최근 3개월간 2Q25, FY25, FY26 EPS(Fwd. 12M)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며 실적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경우 각각 +4.0%, +5.1%, +5.5%씩 상향 조정되었으며, 장기로 갈수록 전망치 개선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어플리케이션 가속기는 +6.2%, +3.6%, +2.8%로 올해 2분기 전망치 조정폭이 컸던 것이 특징이다. 다만 어플리케이션 가속기는 최근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투자매력도 측면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더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러 섹터의 PER(Fwd.12M)은 26 배 수준으로 어플리케이션 가속기 섹터의 밸류에이션 수준인 32배보다 낮다. 또한 AI 전체 섹터 평균 PER(31 배)을 하회하여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부진한 섹터도 존재, AI 투자에도 선별적 접근이 필요

반도체와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하드웨어의 2분기 EPS(Fwd.12M)는 지난 3개월간 하향 조정 비율이 각각 -4.4%와 -1.1%로 가장 컸다. 이는 AI 인프라 투자의 양극화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엔비디아 등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범용 반도체는 수요 둔화로 전체 시장 성장세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쟁 심화와 차별화 한계 문제로 수익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2분기 EPS 실적 전망 조정치도 각각 -0.1%, +0.7%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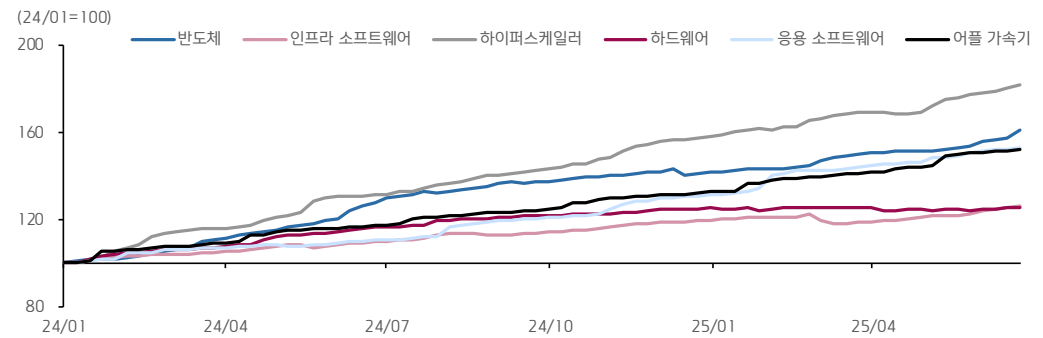
결국,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하이퍼스케일러 섹터가 2025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최우선 투자처로 판단된다. 하이퍼스케일러 섹터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등의 종목이 속해 있으며, 이들은 잘 알려진 M7 종목의 일부이기도 하다. 2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AI 관련 기업들의 구조적 성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테마 내에서 이익 모멘텀이 존재하는 동시에 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높지 않은 종목군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AI 섹터별 시가총액 증가 추이 (2024년 1월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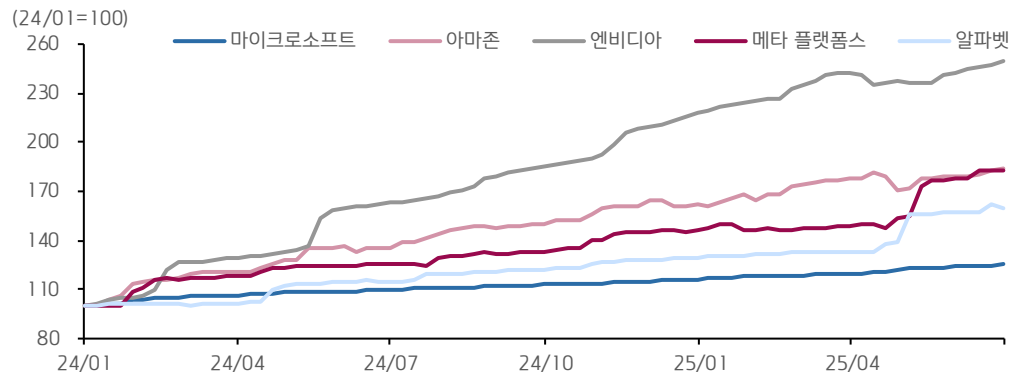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7/10 종가 기준
주 2) 업종 구분은 블룸버그 기준

미국 AI 섹터별 EPS(Fwd,12M) 추이 (2024년 1월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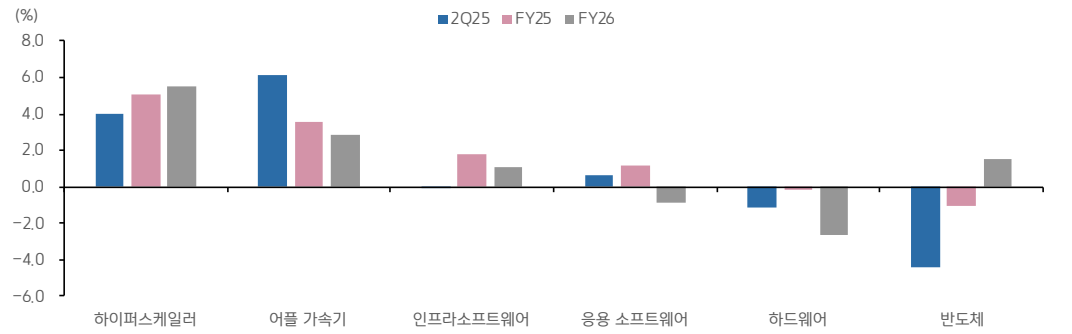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7/10 종가 기준

하이퍼스케일 섹터 종목별 EPS(Fwd,12M) (2024년 1월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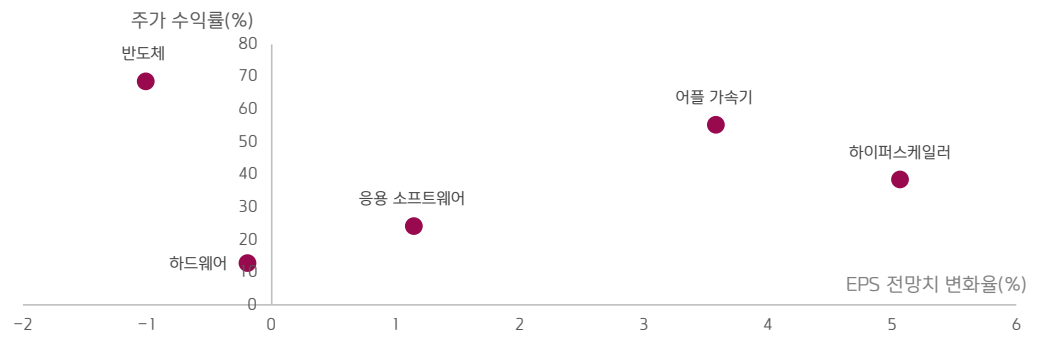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7/10 종가 기준

AI 섹터별 FY25 2Q25, FY25, FY26 EPS 전망치 변화율 (3개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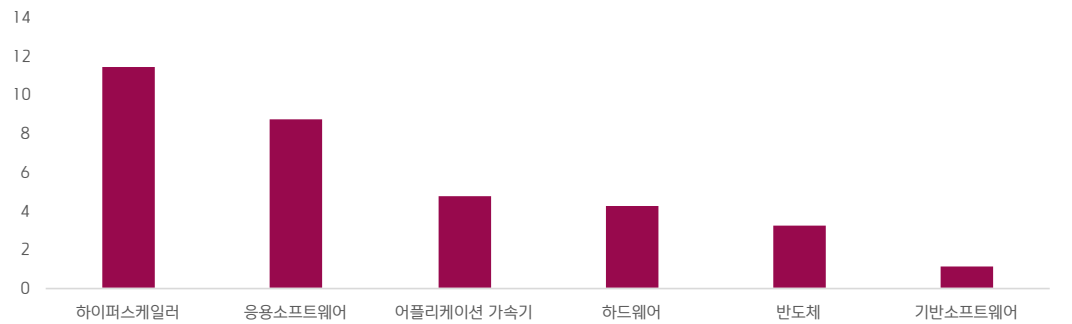
AI 섹터별 주가 수익률 및 FY25 EPS 전망치 변화율 (3개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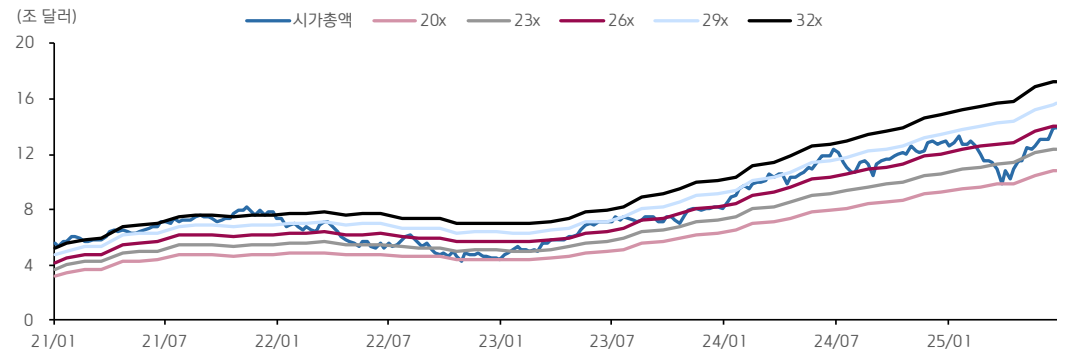
주) 섹터 해당 종목의 주가 수익률과 EPS(Fwd.12M) 전망치 변화율의 시가총액가중 평균

AI 섹터별 2Q25 이익조정비용 (1개월)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하이퍼스케일러 섹터 PER(Fwd.12M)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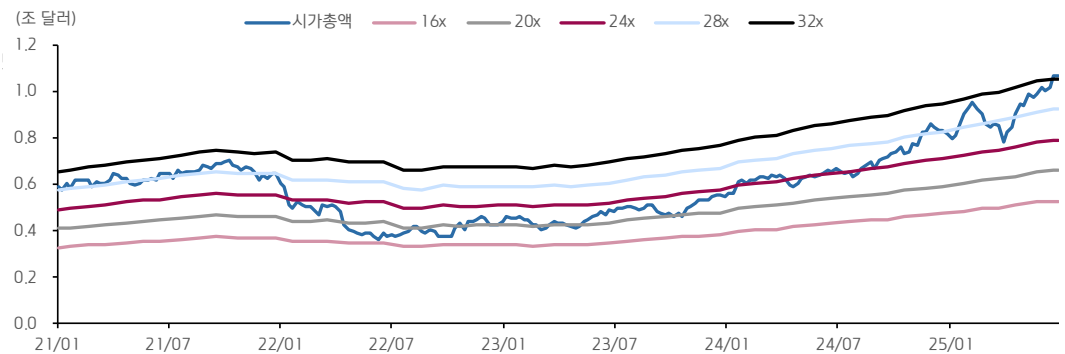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섹터 해당 종목 PER(Fwd.12M)의 시총 가중 평균

주 2)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섹터: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닷컴(AMZN), 엔비디아(NVDA), 메타 플랫폼스(META), 알파벳(GOOG)

어플리케이션 가속기 섹터 PER(Fwd.12M)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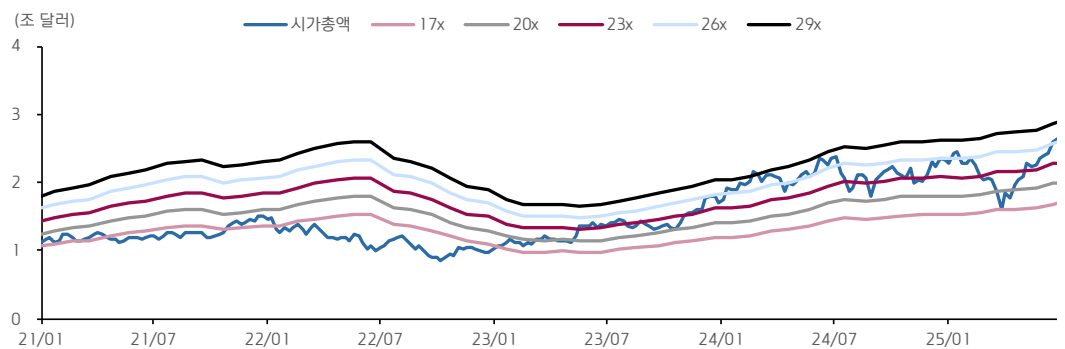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섹터 해당 종목 PER(Fwd.12M)의 시총 가중 평균

주 2) 어플리케이션 가속기(Application Accelerator) 섹터: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 IBM(IBM),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CTSH), 넷플릭스(NFLX), 레드(RDDT), 젠팩트(G), 핀터레스트(PINS), 스냅(SNAP)

반도체 섹터 PER(Fwd.12M)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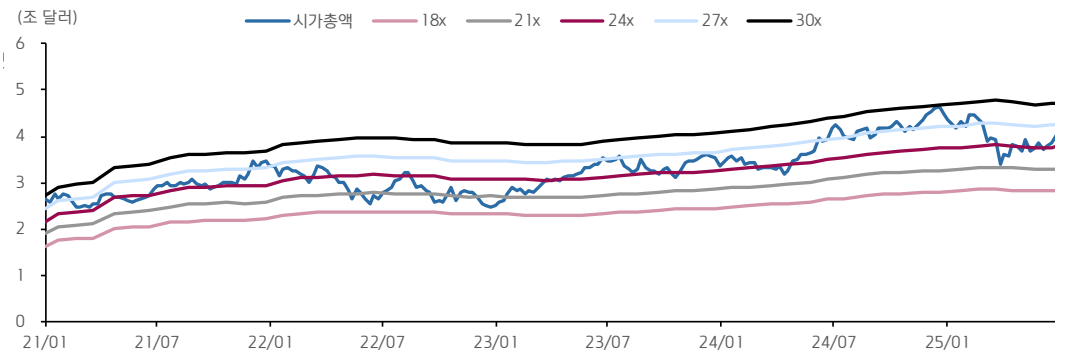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섹터 해당 종목 PER(Fwd.12M)의 시총 가중 평균

주 2) 반도체(Semiconductor) 섹터: AMD(AMD), 캐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ON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 인텔(INTC), KLA(KLAC),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히어런트(COHR), 램리서치(LRCX), 래티스 세미컨덕터(LSCC), 퀄컴(QCOM), 시놉시스(SNPS), 앰코 테크놀로지(AMKR),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MPWR), 마블 테크놀로지(MRVL), 암바렐라(AMBA), 브로드컴(AVGO), 아스테라 랩스(ALAB)

하드웨어 섹터 PER(Fwd.12M)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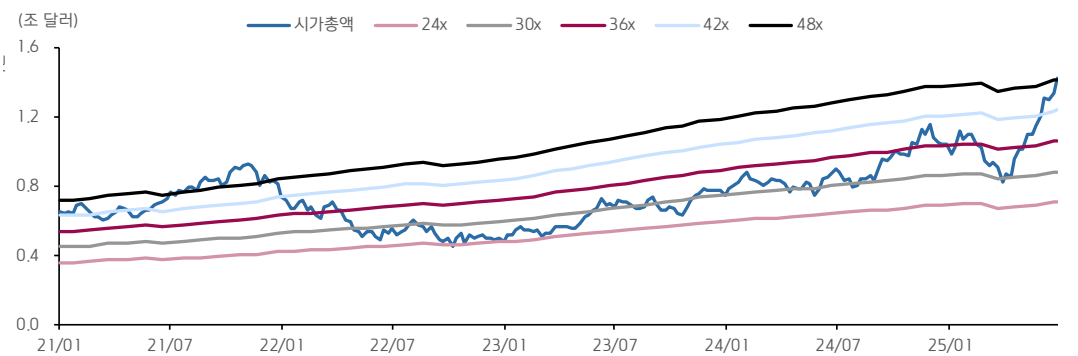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섹터 해당 종목 PER(Fwd.12M)의 시총 가중 평균

주 2) 하드웨어(Hardware) 섹터: HP(HPO), 웨스턴 디지털(WDC), 애플(AAPL), 비아비솔루션스(VIAV), 넷애플(NTAP), 시에나(CIEN), 임페널(APH), 셀레스티카(CLS), 주니퍼 네트워크(JNPR), 어플라이드 오토일렉트로닉스(AAO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SMCI), 아리스타 네트워크(ANET), 루멘텀 홀딩스(LITE),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델 테크놀로지스(DELL), 펑크 솔루션스(PENG), 버티브 홀딩스(VRT), 크리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CRDO), 시스코 시스템즈(CSCO)

인프라 소프트웨어 섹터 PER(Fwd.12M)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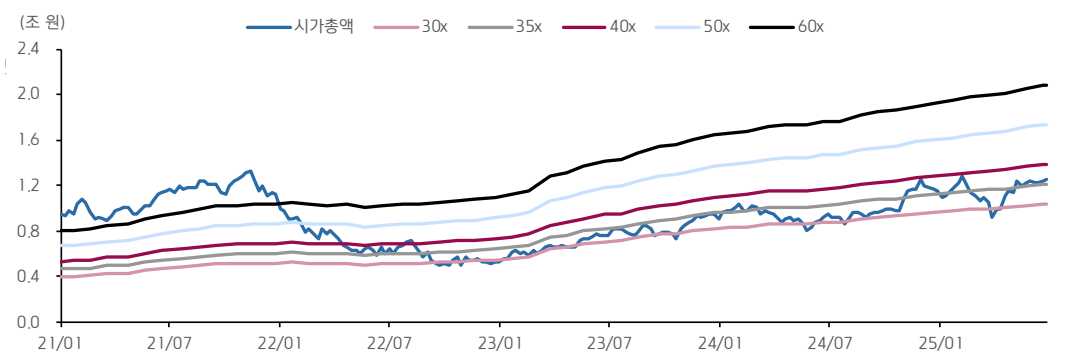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섹터 해당 종목 PER(Fwd.12M)의 시총 가중 평균

주 2) 인프라소프트웨어(Infrastructure Software) 섹터: 오라클(ORCL), 아카마이 테크놀로지(AKAM), 퀴리스(QLYS), 서비스나우(NOW), 지스케일러(ZS), 박스(BOX), 드랍박스(DBX), 클라우드플레어(NET), 몽고 DB(MDB), 트윌리오(TWLO), 데이터도그(DDOG), 패스트리(FSLY), 스노우플레이크(SNOW), 센티넬(S),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 다이내트레이스(DT), C3 AI(AI), 코어위브(CRWV)

응용소프트웨어 섹터 PER(Fwd.12M)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 섹터 해당 종목 PER(Fwd.12M)의 시총 가중 평균

주 2)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 섹터: 어도비(ADBE), 인튜이트(INTU), 오픈 텍스트(OTEX), 라이브퍼슨(LPSN), 세일즈포스(CRM), 링컨트럴(RNG),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 옥타(OKTA), 쇼피파이(SHOP), 줌 커뮤니케이션스(ZM), 깃랩(GTLB), 유아이패스(PATH), 템퍼스 AI(TEM), 제타 글로벌 홀딩스(ZETA), 사운드하운드 AI(SOUN)

2025년 7월 11일 미국은 지금
AI 섹터별 실적 및 밸류에이션 비교

AI 섹터 종목 중,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고, 이익모멘텀 상위 종목군

티커	종목명	AI 섹터 분류	시가총액	PER(Fwd, 12M)		주당순이익(EPS)			주가수익률(%)	
			(bil \$)	현재 (배)	5년 기준 Z-score	2Q25 성장률 (YoY, %)	FY25 성장률 (YoY, %)	2Q25 EPS 이익조정비율(1M)	1개월	3개월
NVDA	엔비디아	하이퍼스케일러	4,004.0	33.00	-0.61	46.76	45.02	5.0%	14.0	52.6
AAPL	애플	하드웨어	3,172.5	28.14	0.38	2.21	6.20	6.9%	4.8	11.5
AMZN	아마존닷컴	하이퍼스케일러	2,359.6	27.29	-1.26	0.00	6.75	4.3%	2.1	22.6
GOOGL	알파벳	하이퍼스케일러	2,161.8	15.95	-1.32	0.28	6.00	14.0%	-0.5	16.2
META	메타 플랫폼스	하이퍼스케일러	1,828.5	21.96	0.61	8.67	7.16	20.5%	3.5	33.1
CRM	세일즈포스	응용 소프트웨어	252.4	22.20	-1.00	8.52	10.95	2.3%	-1.6	3.5
NOW	서비스나우	인프라 소프트웨어	200.4	52.92	-0.66	14.31	19.05	5.9%	-4.1	23.6
ADBE	어도비	응용 소프트웨어	157.6	16.83	-1.51	11.38	11.82	89.3%	-10.7	6.1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137.8	10.74	-0.49	112.71	497.38	77.8%	7.9	75.7
SNOW	스노우플레이크	인프라 소프트웨어	71.6	164.03	-0.26	47.22	32.77	2.5%	3.0	48.4
MRVL	마벨테크놀로지	반도체	63.3	23.34	-0.91	125.00	78.28	3.2%	6.6	38.8
CTSH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	어플 가속기	37.8	14.51	-0.49	7.95	7.18	5.0%	-5.3	10.4
MPWR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스	반도체	35.5	40.19	-0.43	29.84	20.07	6.3%	1.2	52.8
COHR	코히런트	반도체	14.6	20.62	0.58	50.66	109.04	5.3%	14.3	69.0
G	젠팩트	어플 가속기	7.9	12.39	-0.68	7.97	6.13	10.0%	3.9	-3.0
QLYS	퀵리스	인프라 소프트웨어	5.1	22.04	-1.48	-2.63	1.26	4.8%	-0.2	15.2

자료: Bloomberg, Datastream,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최근 5년 기준 PER(Fwd, 12M)이 1*표준편차 이하 & FY25 EPS 성장률 전망 (+)인 종목들 중, 2Q 이익조정비율 상위 종목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은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